

한국의 도서관 명칭 수용 및 쟁점 연구

-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Controversy of Word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the Busan Library of the Nihon Kodo-kai

윤 희 윤 (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 도서관 논증 |
| II. 도서관 명칭의 변천과 수용 | IV. 요약 및 결론 |

요약: 한국의 근현대 도서관 역사는 150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도서관(관)이란 말이 언제 등장하여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개화기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도서관의 명칭 및 전모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이란 말은 조선 초기부터 시문집, 묘비명, 일기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은 1895년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통해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1881년 이현영의 『일사집략』에 등장하며, 1884년 『한성순보』에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시설명에 부여한 최초의 명칭은 1901년 10월 10일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홍도도서관이다. 많은 문헌에 기술된 도서관구락부, 독서구락부(도서관), 부산(부산지부)도서관(관), 홍도도서관 등은 오류다. 홍도도서관 위치는 용두산 서산하정 임차지의 임시 가옥이었고, 규모는 방 1칸 정도와 화한서와 양서로 구성된 장서 1천권 내외였으며, 일본 거류민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홍도도서관이 한국인에 의해 설립한 최초 공공도서관은 아니지만, 한국에 존재한 최초 공공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홍도도서관의 성격을 규정할 때는 민족적 정서, 역사적 갈등, 이념적 프레임에 초월하는 냉정함과 분별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도서관 명칭, 공공도서관, 홍도도서관,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 서유견문

ABSTRACT: The history of modern libraries in Korea is less than 150 years. Nevertheless, there are various issues about when the word library appeared, how it was transformed, and the name and overall appearance of the library opened by the Busanpo branch of the Nihon Kodo-kai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and argued many issu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word library appeared in poetry collections, tombstones, and diarie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Although it was widely held that the library was first introduced by Yu Gil-jun's 『Seoyugyeonmun, 1895』, it appeared in Lee Hun-young's 『Iisajipryak』, and was also introduced in 『Hanseongsunbo, 1884』. And the first name given to the facility was Kodo library, which was opened by the Busanpo branch on October 10, 1901. Book club, reading club (library), Busan(Busan district) library, Kodo bookstore, Kodo-kai library, etc. which are described in many documents are all errors. The location of the library was a temporary house on a leased site in Seosanhajeong of Yongdusan mountain. And it is presumed that it has secured about one room and 1,000 Japanese and Western books, and provided fee-based services to Japanese residents. Although the Kodo library is not the first public library established by a Korean, it is undeniable that it was the first public library to exist in Korea. Therefore, when defining the character of the Kodo library, it is necessary to have a coolness and discernment beyond national emotions, historical conflicts, and ideological frames.

KEYWORDS: Word Library, Public Library, Kodo Library, Busan Branch of Japanese Hongdohoe, Seoyugyeonmun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 논문접수: 2023년 2월 20일 • 최초심사: 2023년 3월 1일 • 게재확정: 2023년 3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1-24, 2023. <http://dx.doi.org/10.16981/kliiss.54.1.202303.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목적

2001년 개봉된 메멘토(Memento)는 놀런(Nolan) 감독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의 복수와 반전을 그린 범죄·스릴러 영화다. 맥락 부재의 기록이 초래하는 참상을 처절하게 묘사하였다. 이 영화를 계기로 회자된 여러 패러디 중 압권은 줄거리를 토대로 만든 캐논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광고 카피다. 기억이 희미한 흔적에 대한 회상이라면, 기록은 수상과 지문을 동원하여 기억을 문자로 체계화한 기호학이다.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소환하고 재생시키는 역사적 증거로 격상되며, 문서관 및 도서관에 보존하는 것이 상례다.

그렇다면 기록물을 집적시킨 도서관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는가. 서양의 경우, 고대 로마제국에서 도서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βιβλιοθήκη'다. 그것을 모태로 유럽에서는 도서관을 bibliotheca로 호칭하였고, 고대 프랑스어로 변용된 librairie에서 library가 파생되어 의미를 비롯한 지구촌 도서관 명칭의 대명사로 정착되었다. 고대 및 중세 동양에서는 왕조를 달리하며 고유명사 뒤에 부(府), 실(室), 각(閣), 전(殿), 당(堂), 장(藏), 루(樓), 고(庫) 원(院) 등을 부기하여 도서관을 지칭하였다. 그러다가 메이지 정부의 서양 시찰단이 bibliotheca와 library를 일본에 번역·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자어 '지도(地圖書) 또는 도판(圖版)과 서적(書籍)을 조합하고 관을 부기하여 도서관(圖書館)이란 말을 조어하였고,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한국·베트남에 이입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도서관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도서관계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리고 서양 도서관을 자국에 소개한 주역이 일본에서는 근대 계몽사상가 겸 저술가 후쿠자와(福澤諭吉, 1835-1901년), 중국에서는 개혁사상가 겸 교육자 랑치차오(梁啟超, 1873-1929년),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 겸 외교관 유길준(兪吉濬, 1856-1914년)이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개화기 전에 집필 또는 번역·소개된 여러 문헌에 도서실(館)이란 말이 등장하므로 각각은 오류 내지 곡해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중후기 및 개화기의 각종 문헌을 추적하여 한국 도서관사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 시점을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삼으면 127년이고, 더 소급하여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까지로 역산하더라도 145년에 불과함에도 도서실(館)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문헌과 신문기사,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설립한 시설의 최초 명칭 및 전모에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논저, 신문기사,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각기 상이한 명칭을 제시하면서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의 역사 의식 결여, 지적 나태함, 치열한 논증 부재가 초래한 결과다. 향후에도 도서관이란 말이 등장한 시기와 최초 명칭에 대한 추적과 논증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근현대 도서관사를 정립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첫째, 시대적 범위는 삼국시대에서 근대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까지로 한정한다.

둘째, 연구방법은 망라적 문헌조사를 전제로 도서관(관)이란 용어의 출현 및 변용에 대한 시대적 선후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서, 근대 원전자료, 신문, 연보, 법령, 디지털 파일, 웹사이트, 인터넷 자료를 추적하여 전거 및 연계성을 규명한다.

셋째, 그럼에도 자료입수 제약, 원전·사료 접근의 제한 때문에 문헌조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료 추적 및 고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선행연구 개관

지난 100년간 한국 도서관사를 다룬 논저에서 화제한어인 도서관이란 말이 등장 또는 수용된 시기와 최초의 도서관 명칭을 논한 연구는 극소수다.

1960-70년대는 박영희(1963, 213)가 1901년 10월 일본인이 부산에 독서구락부라는 명칭의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그것을 현대적 도서관의 효시인 동시에 최초로 설립된 공공도서관으로 간주하였다. 정필모(1971, 75)는 1906년 대한도서관이 설립되면서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36년 부산도서관 발족 후 보편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는 김포옥(1980, 142-143)이 한일병합을 전후로 일본인이 설립한 사립도서관은 1901년 부산도서관이 대표적인데, 1876년 부산 개항과 함께 조선 각지로 이주한 일본인에게 교육시설이 가장 필요하였던 것으로 진단하였다. 1985년 우지고(宇治郷 毅, 1985, 6)는 유길준의 새로운 도서관상이 개화기 한국에 도입되었고, 일본홍도회 부산지부가 일본 거류민을 위한 홍도도서관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후속논문(宇治郷 毅, 1988, 3)에서는 1901년 설립된 부산도서관을 한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김영석과 이용재(2018, 131-150)는 일본홍도회도서관이 부산 특정구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해 설치되었고, 대다수 장서가 일서였으며, 누구에게나 개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공공도서관의 시초로 기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의적 해석, 원전 논증의 부실, 출처 미상 내지 불분명, 검증이 배제된 재인용한 사례 등이 혼재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란 말이 등장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특히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설치한 명칭과 성격에는 상당한 입장차가 있다. 집요한 추적과 논증이 필요한 이유다.

Ⅱ. 도서관 명칭의 변천과 수용

1. 왕조별 도서관 명칭의 변천

고대 도서관사는 근동, 서양, 중국과 마찬가지로 왕조 중심의 기록관, 서고, 문고에서 시작되었다. 전설에 속하는 기원전 선사를 제외하면 출발점은 삼국시대다.

먼저 삼국시대의 경우,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년) 설립된 태학(太學)은 수도 국내성(현 吉林省 輯安縣 通溝城) 지배계층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고, 6세기 중반 성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당(局堂)은 지역단위 미성년·미혼 자녀의 유교교육 및 군사훈련을 담당한 초급교육기관으로서 유서 등을 보존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태학에는 도서관 기록이 없는 반면, 경당은 『구당서』(舊唐書, 卷199上, 列傳 149 上高麗)와 『신당서』(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高麗)를 발췌한 다음 대목을 보면 흔적이 있다.

습속은 서적을 아긴다. 형문(衡門)·시양(廡養)의 가(家)에 이르기까지 가구(街衢)에 각기 대옥을 축조하고 이를 **경당(局堂)**이라 불렀는데, 미혼 자제가 밤낮으로 이곳에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혔다(舊唐書: 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

[고구려]인은 학문을 좋아하였다. 궁리(窮里)¹⁾의 시가(廡家)에 이르기까지 또한 서로 [학문을] 부지런히 권면하여 구측(衢側)에 모두 엄옥(嚴屋)을 짓고 **국당(局堂)**²⁾이라 불렀는데, 미혼 자제가 무리를 지어 거처하며 송경(誦經)하고 활쏘기를 익혔다(新唐書: 人喜學 至窮里廡家 亦相矜勉 衢側悉構嚴屋 號局堂 子弟未婚者曹處 誦經習射).

그러나 기록상 최초의 도서관 명칭은 장문고(藏文庫)다. 구한말 유학자 겸 문인 황현(黃玹)이 편년체로 저술한 역사서 『매천야록』(梅泉野錄, 총 6권 7책) 제6권(隆熙二年戊申, 1908년)은 제28대 보장왕 645년 당나라 이적(李勣)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3개성(蓋牟城, 遼東城, 白巖城)을 함락할 때 평양의 궁궐 및 장문고(왕실도서관)를 불태웠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매천야록에는 출처가 없어 확정하기 어렵다.

당나라 이훈이 평양을 점령한 후 고구려 장문고를 보고, 소국이 문헌을 이렇게 많이 구비하고 있을까? 이를 그대로 두면 후세에게 지혜를 발전하게 하여 변환이 가중될 것이므로 모두 불태웠다(唐李勣克平壤, 閱高句麗藏文庫曰, 小國文獻, 乃如此具備乎, 留之恐開後人之智, 滋爲之邊患, 悉火).

1) 리항(里巷)과 가항(街巷)의 구석진 공간, 즉 주요 도시의 주변부를 말한다.

2) 『구당서』는 경당, 『신당서』는 국당으로 표기하였고 후대 많은 문헌에서도 국당으로 서술하였으므로 국당으로 읽어야 한다(이정빈, 2012, 345).

백제에도 고구려의 그것과 동명인 태학이 있었다. 당나라 시안(西安)에서 발견된 진법자(陳法子) 묘지명³⁾을 분석한 결과, 태학이 실존하였기 때문에 왕실도서관도 부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는 제31대 신문왕 2년(682년) 예부(禮部) 소관으로 국학(國學)이 설치되었고, 제35대 경덕왕은 746년 국학을 태학감(太學監)으로 개칭하였으며, 제36대 혜공왕 12년(776년)에 환원되었다. 문성왕 17년(855년)에는 왕실문고인 진각성(珍閣省)을 설립하여 경적, 제고(制誥), 축소(祝疏), 제향(祭享) 등의 문서를 소장하였다. 따라서 국학 교육기관은 궁중도서 보존서고 내지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고려조는 신라 교육제도를 계승하되 관학과 사학으로 양분하였다. 관학은 성종 11년(992년) 중앙(西京, 현 평양) 국자감(國子監)과 학당, 지방 향교가 담당하였다. 국자감은 최고 관학교육기관이고, 원종 2년(1261년) 강도(江都)에 설치된 동서학당(東西學堂)은 중등교육기관을 대표하였다. 사학은 개경의 십이공도(十二公徒)⁴⁾가 고등교육을, 서당(書堂)이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강학, 기록과 편찬, 도서관 기능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주체와 성격을 기준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왕실문고 : 초기 내서성(內書省), 성종조의 비서성(秘書省, 내서성의 후신)과 비서각(秘書閣 또는 秘閣⁵⁾), 숙종조의 비서각, 예종조의 청연각(淸讌閣)과 보문각(寶文閣), 인종조의 임천각(臨川閣), 수문전(修文殿, 숙종조 文德殿의 후신), 중광전(重光殿), 연영전(延英殿, 紫宸殿·景德殿의 후신), 집현전(集賢殿)과 집현관(集賢館) 등 관서 내의 장서처
- 관영문고(官營文庫) : 성종 9년(990년) 서경에 설립된 학술진흥 및 관서고를 겸한 수서원(修書院), 왕조실록을 보관한 개경의 사관(史館, 史庫 또는 史閣) 등
- 교육문고 : 국자감(國子監)에서 서적 인쇄·보급을 담당한 서적포(書籍鋪), 최충(崔沖)의 사숙(私塾)인 구재(九齋)⁶⁾ 등
- 사찰문고 : 개경의 장경도장이던 국찰 흥왕사(興王寺), 1087년 초조대장경을 봉안한 대구 부인사(符仁寺), 개성 개국사(開國寺), 경기 광주 국청사(國淸寺), 무주 안국사(安國寺)

3) 진법자는 의자왕 19년(660년) 5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협공하자 당에 투항한 후 여러 관직을 거친 후 690년 2월 사망하였고 이듬 해 시안에 매장하였다. 묘지명에 등장하는 증조부 진춘(陳春)은 본방(本邦), 즉 백제 태학(太學)에서 정(正)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구재는 문헌공도(文憲公徒), 홍문공도(弘文公徒), 광헌공도(匡憲公徒), 남산도(南山徒), 서원도(西園徒), 문충공도(文忠公徒), 양신공도(良愼公徒), 정경공도(貞敬公徒), 충평공도(忠平公徒), 정헌공도(貞憲公徒), 서시랑도(徐侍郞徒), 귀산도(龜山徒)를 말한다.

5) 고려 초 내서성은 995년 비서성, 1298년 비서감, 1308년 전교서(典校署), 전교시(典校寺)로 이어졌다. 1356년 다시 비서감으로 개칭·폐지, 1362년 재설치, 1369년 비서감으로 개편, 1372년 복치되었다. 비각과 비서각은 문종 때 모두 비각으로, 숙종 때 비서각으로 칭한 동일 기관이다.

6) 문종 9년(1055년) 하직한 최충이 후진양성을 위해 설치한 사숙으로 9개 학반(學班) 즉, 악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으로 나누었다. 과거 응시용 예비학교 성격이 강하였다.

등, 1251년(고종 38년) 재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해인사 경판고(經板庫)를 비롯한 전국 사찰문고

- 개인문고 : 만권당(萬卷堂)⁷⁾으로 대표되는 왕가, 학자, 명문, 문중 등의 사가문고

마지막으로 조선조는 고려시대보다 유교경전, 왕조실록 등의 편찬과 출판, 보존활동이 활발하였다. 교서관, 예문관과 춘추관, 집현전, 규장각이 대표적이다. 왕실도서관 기능을 병행한 주요 기관 및 시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윤희운, 2019, 67-68 수정·보완).

<표 1> 조선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한 관서 및 시설

명칭	연도 (왕조)	설립연도, 명칭변경, 주요 특징	기능		
			학술 교육	편찬 출판	도서관 문서관
교서관 (校書監) 교서관 (校書館) 전교서 (典校署)	1392년 (태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서관은 고려 후기 전교시(典校寺)와 같은 기관으로 개국 원년(1332년) 설치하여 경적 인쇄와 교정, 향축(香祝), 인전(印篆) 등을 관장하였음 • 교서관은 태종 원년(1401) 주자소를 합속시킨 기관으로 세조 6년(1466년) 전교서로 바뀌었고, 성종 15년(1484년) 교서관으로 복칭되었고, 정조 6년(1782년) 규장각에 편입시켜 출판을 담당하는 외각으로 두었으며, 도서를 보존하던 문무관은 선조 25년(1592년) 화재 침입 때 소실되었음 		■	■
예문관 (藝文館) 춘추관 (春秋館)	1401년 (태종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국 때의 예문춘추관이 1401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음. 예문관은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 장서를 인수·관장하고 서적을 간행하였고, 춘추관은 실록 편찬 및 사고(史庫)를 수장하였음 • 태종실록이 완성될 때까지 한양 내사고(內史庫)인 춘추관사고, 충주 외사고(外史庫)인 충주사고, 1439년 성주·전주사고를 만들어 운영하였음 		■	■
집현전 (集賢殿)	1420년 (세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20년 세종이 보문각(普文閣)과 수문전(修文殿)을 통합한 집현전은 왕실의 학술연구, 문화정책 중심,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였음 • 세종 11년(1429년) 집현전 장서 증가로 궁성 서문 안에 신축하고 북쪽에 장서각(藏書閣)을 두어 4부 분류체제로 보존하였으나, 세조 2년(1456년)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은 폐지되고 예문관(藝文館)이 장서를 관리하였음 	■		■
승문원 (承文院)	1410 (태종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조칙과 외교문서를 관장하던 관청(문서관)으로 괴원(槐院)으로도 지칭되었으나, 고종 31년(1894년) 폐지되었음. 장덕궁에는 역대 왕조의 특수 기록류를 별도 보관한 신원전(璿源殿)도 있었음 			■
홍문관 (弘文館)	1462년 (세조 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조 9년(1463년) 양성지(梁誠之) 건의로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으로 개칭하고 궁중 경서(經書)·사적(史籍) 관리, 문헌(文翰) 처리, 왕에 자문하는 등 학술·언론,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였고, 부설 등영각(登瀛閣)에는 집현전에서 이관된 서적, 새로 인출된 책, 서사관(書寫官) 선사본(繕寫本), 화원 제작 화첩, 왕의 재가로 연경에서 구입한 서적 등을 소장하였음 • 1894년 갑오개혁 때 예문관(藝文館)과 합해 경연청(經筵廳)으로 개칭되었고 이듬 해 경연원(經筵院)으로, 1896년 홍문관으로 환원되었음 	■		■
존경각 (尊經閣)	1475년 (성종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국자감(1362년)을 개칭한 성균관은 조선조 인재양성을 위한 유학기관이었으며, 성종 6년(1475) 존경각(대학도서관 상당)을 부설하여 사서오경 각 100권을 기본장서로 하고 전교서와 전국 서관을 수집·보존하였음 	■		■
규장각 (奎章閣)	1776년 (정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 즉위년(1776년) 3월 궁내 독립기구로 창덕궁 후원에 설치된 규장각은 왕조의 시문, 친필 서화와 고명(顧命), 유교(遺敎), 선보(璿譜), 보감(寶鑑) 등을 보존·출판하였고, 후에 학문연구, 정치활동의 중심기관이었음 • 정조 1년(1777년) 8월 개유와(皆有窩)와 열고관(閱古觀)이 규장각 부속 서고로 설치되어 모든 도서를 보관하다가 규장각 장서가 증가하자 조선본은 서북쪽 서고(西庫)에, 중국본은 개유와 및 열고관에 보관하였음 • 1910년 한일병합 때 규장각 장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 1912년 총독부 참사관실(參事官室), 1922년 학무국, 1928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가 광복 후 서울대에서 인수·관리하고 있음 	■	□	■

7) 고려 제26대 충선왕(忠宣王)이 아들 충숙왕(忠肅王) 1년(1314년) 원나라 수도 연경(현 베이징) 자택에 지은 독서당(讀書堂) 겸 학술연구기관으로 많은 고금진서(古今珍書)를 수집·보존하였다.

조선시대는 서원, 향교, 서당에서도 교육 및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의 사립 유교 교육 기관인 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 대표적이다. 기타 정몽주를 추모하는 영천 임고서원(1554년), 송시열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는 화양서원(1696년)도 있다. 1770년 정조의 명에 따라 1908년 완성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조선 말기 서원은 674개(院 388개, 祠 286개)에 달하였다. 대다수는 교육, 편찬과 간인, 수장고 기능을 병행하였다. 그 가운데 압권은 도산서원에서 강학공간(강당인 전교당,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의 입구 출입문(진도문) 양쪽에 세운 습해 방지용 누각인 동서 광명실(光明室)이다. 남송 유학자 주자(朱子)의 ‘만권서적혜아광명’(萬卷書籍 惠我光明)에서 취한 장서고다. 지방 국립교육기관인 향교는 부목군현(府牧郡縣)에 각 1개씩 설립되어 입적하면 과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초급 사설교육기관인 마을의 서당에는 교재와 전적을 보관하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 중후기에는 유명한 사가 장서각도 많았다. 영조 때 문신 겸 서예가 강준흠(姜浚欽)은 『독서차기』(讀書簡記)에서 선조 때 재상 이정귀(李廷龜)의 월사고택(月沙古宅, 서울 명륜동), 숙종 때 호조판서 류명천(柳命天)의 청문당(淸聞堂, 경기 안산시), 이조판서 류명현(柳命賢)의 경성당(竟成堂, 경기 안산시), 문인화가 이하곤(李夏坤)의 완위각(宛委閣 또는 萬卷樓, 충북 진천군)을 18세기 4대 장서각으로 칭하였다. 19세기 홍한주(洪翰周)의 『지수염필』(智水沾筆)에 따르면 규장각 초계문신 심상규(沈象奎)는 4만권, 판서 조명귀(趙秉龜)와 윤치정(尹致定)은 각각 3-4만권, 대제학 서유구(徐有榘)는 8천권을 소장하였다.

요컨대 삼국시대에서 조선조까지 전적 등을 수집·보존하는 시설은 중국의 영향으로 고유명사에 고(庫), 당(堂), 감(監), 원(院), 성(省), 각(閣), 포(鋪), 재(齋), 전(殿), 관(館, 觀), 와(窩), 실(室) 등을 후치시켜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강론과 교육, 학술연구, 편찬·출판, 전적보존 등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관서 = 도서관’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조선조도 존경각, 규장각 부설 서고를 제외하면 도서관 자체를 대변할 수 없다. 그리고 19세기 말까지 왕조 차원에서 도서실(관)을 부여한 시설은 없었다.

2. 화제한어 도서관 명칭의 수용

도서관의 어원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 또는 βιβλιοθήκη’에서 변용된 라틴어 bibliotheca(또는 bybliothea)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 ‘librarium’(liber 책을 의미하는 목피 + arium 사물을 보존하는 장소)에서 파생된 14세기 앵글로 프랑스어 librarie(책장)다. 영어 library는 524년경 로마 정치가 겸 철학자 보에티우스(Boëthius, 477-524년)가 저술한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을 1374년 영국 작가 초서(Chaucer)가 번역하면서 조어한 용어다(Kupfer, 2010).

조선조에서 도서관의 전 단계인 도서관실은 중기 시문집 및 묘갈명(墓碣銘)⁸⁾에 등장한다. 그 최초 흔적은 <표 2>에 집약한 것처럼 영의정 신숙주의 손자, 김종직의 문인, 이조·예조·병조판서를 역임한 문신 신용개(申用漑)가 1517년 저술한 『속동문선』(續東文選)인데 ‘滿壁圖書室轉幽’(책이 가득한 방은 더욱 그윽하다)가 기술되어 있다. 이어 1632년 황정욱(黃廷彧)의 『지천집』(芝川集)에 기록된 윤엄(尹儼)의 묘갈명, 1664년 이민성(李民成)의 『경정집』(敬亭集) 등에도 등장한다. 1789년경으로 추정되는 이복원(李福源)의 『쌍계유고』(雙溪遺稿), 1866년 이채(李采)의 『화천집』(華泉集) 시에도 도서관실이란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표 2> 도서관실 및 도서관 명칭의 출처

연도	저자	명칭	출처
1517	신용개(申用漑)	滿壁圖書室轉幽 (책이 가득한 방은 더욱 그윽하다)	속동문선(續東文選) 卷之七 詩 和甫甫
1632	황정욱(黃廷彧)	揭圖書室壁左右 (도서관실 벽 좌우를 걸었다)	지천집(芝川集) 卷之四 墓碣銘 四首 承議郎行戶曹 佐郎尹公墓碣銘并序
1664	이민성(李民成)	蕭然圖書室 (도서관실이 한적하다)	경정집(敬亭集) 敬亭先生集年譜卷之二 附錄 輓詞 直講申達道
1789(?)	이복원(李福源)	圖書室靜生虛白(도서관실이 조용하고 희다)	쌍계유고(雙溪遺稿) 卷之一 詩 次聯句韻
1866	이채(李采)	韶顏白髮圖書室	화천집(華泉集) 卷之二 詩 鄭進士 錫休 挽
1877	김기수(金綺秀)	東京書籍館	일동기유(日東記遊)
1881	이현영(李顯永)	而門柱書圖書館三字(문주에 도서관 3자를 썼고)	일사집략(日槎集略)
1881	조준영(趙準永)	各國書之雜置見甚不敬太學稱以圖書館...	日本聞見事件草, 제2집
1882	박영호(朴泳孝)	往觀圖書館...動物園而歸(도서관...동물원을 관람 하고 돌아왔다)	사화기략(使和記略)
1884	한성순보(漢城旬報)	동경 당도대성전(湯島大聖殿) 박물관 내의 도서관 설명	기사: 이태리가 날로 강해지다(3. 27 12면)
1885	박대양(朴戴陽)	門外立碑. 題曰東京圖書館 (문 밖 비를 세우고 동경도서관이라 써 놓았다)	동사만록(東槎漫錄)
1892	황현(黃玟)	羨君十世圖書室 (십세 도서관실을 지키는 그대가 부럽다)	梅泉集, 제1권 시(詩) 임진고(壬辰稿)
1895	유길준(兪吉濬)	서적고(書籍庫)	서유견문(西遊見聞) 제17권
1909	장지연(張志淵)	서적관(書籍館), 장서루(藏書樓)	萬國事物紀原歷史

조선조 후기에는 서적관에 이어 도서관이란 명칭이 등장하였다. 그 배경은 19세기 중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따른 개화운동이다. 일본은 미일수호통상조약과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해체에 따른 화혼양재(和魂洋才) 기반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개혁가 이홍장(李鴻章) 등이 중체서용(中體西用)을 기치로 추진한 양무운동(洋務運動), 조선은 개화파 김윤식 등이 주도한 채서사상(採西思想)인 동도서기(東道西器)를 통해 문호를 개방하고 신문물을 수용하였다. 일본은 계몽사상이 후쿠자와, 중국은 개혁사상이 량치차오, 한국은 문신 겸 외교관 유길준이 주도하였다.

8) 墓主(묘주)의 제자나 우신들이 무덤 앞 등근 비석에 고인의 행적을 기록한 문장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길준은 서양 도서관 사정을 조선에 최초로 소개한 인물인가. 오랫동안 중론이었고 현재도 지배적 논리다. 조선 후기의 문신 겸 개화사상가로 활약한 유길준은 1881년 조사사절단 어윤중(魚允中)을 수행하여 일본의 각종 문물을 시찰·조사하였고 1년간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였다. 1883년에는 서방 외교사절단 보빙사(報聘使)의 민영익(閔泳翊) 수행원으로 참여하여 보스턴대학 등에서 유학한 후 1885년 귀국하였으나 갑신정변에 연루된 죄목으로 우포도장 한규설(韓圭晳) 자택에 감금되어 종로구 가회동 취운정(翠雲亭)⁹⁾ 아래 기와집에서 7년간 연금생활을 하며 동서양 역사¹⁰⁾를 참고하여 1889년 〈그림 1〉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탈고하였다. 1892년 연금이 해제된 후 비용조달 문제, 서학 배척 등을 이유로 출간을 미루다가 1895년 후쿠자와의 교순사(交詢社)에서 발간하였다. 총 4부분(서론, 본론, 결론, 보론) 20편 중 제17편에서 조선에 없는 서양 각국의 수용소, 병원, 맹아원, 농아원, 정신병원, 교도소, 박물관, 식물원, 서적고 등을 소개하였다. 서양의 '서적고(書籍庫)'를 기술한 원문 일부를 발췌·번역하면 다음과 같다(俞吉濬, 1895, 45).



〈그림 1〉
「西遊見聞」 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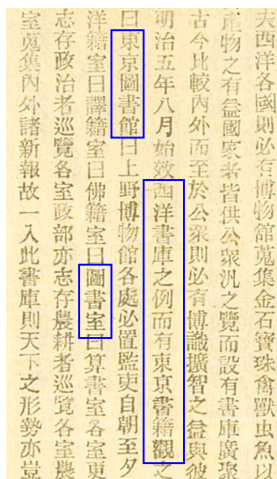
書籍庫는 政府의 設施호 者도 有호고 政府와 人民이 合力호야 建寔호 者도 有호 지라 經書와 史記와 各學의 書籍과 古今의 名畫 及 小說과 各國의 新聞紙의 種類에 至호야 不備호 者가 無호니... 外國의 書冊이 新出板호 者는 購致호고 本國의 書冊은 出板호는 者가 各地 書籍庫에 各一帙을 送致호는 故로 書冊의 卷數가 歲를 逐호야 增加호는 緣由라 如此히 書籍을 貯蓄호기는 世上에 無識호 人民이 欲無호는 方策의 一大主意니 然호므로 泰西諸國에는 大都會마다 書籍庫의 無호 處가 無호시오... 如何호 人이든지 書籍을 閱覽코 저호는 者는 書籍庫에 進호야 任意로 何書든지 披考호기 許호디 携持호고 他處에 往호는 者는 不許호며 惟讀書호는 學徒가 書冊이 缺乏호야 工夫호기 不能호는 時는 貫로 給貸호나 然호나 若其冊子를 毀傷호 則其本價를 徵出호

느니... (서적고는 정부에서 설립한 곳도 있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건설한 곳도 있으며, 경서와 사기, 각 학문의 서적과 고급 명화 및 소설과 각국 신문지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비하니... 외국의 서책이 새로 출판된 경우는 구입하고, 본국의 서책은 출판하는 자가 각지 서적고에 한 질을 보내므로 서책의 권수가 해마다 증가하는지라, 이처럼 서책을 수집·보존하는 이유는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없애는

- 9) 1870년대 중반 민태호(閔台鎬)가 지은 취운정은 대원군 첩의 거소, 의친왕 사저, 한성구락원, 조선총독부 점유, 조선귀족회 소유를 거쳐 민영익의 별원이 되었고, 1920년 11월 5일 윤익선, 윤양구, 김장환의 주도로 설립된 경성 도서관의 자리다.
- 10) 영국 경제학자 포세(H. Fawcett) 「富國策, 1881」, 미국 법학자 휘튼(H.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36」, 후쿠자와 「西洋事情, 1866-1870」, 가토(加藤弘之) 「立憲政體略, 1868」, 챔버스(R. Chambers)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s, 1852」, 웨일랜드(F. Wayland) 「The Elements of Moral Science, 1835」과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1837」, 데니(O.N. Denny) 「清韓論, 1888」, 왕도(王鎬) 「普法戰紀, 1886」, 정관응(鄭觀應) 「易言, 1880」, 그리고 자신이 쓴 「세계대세론」·「국권」·「경쟁론」 등이다.

데 주된 뜻이 있기에 서양 제국은 대도시마다 서적고가 있다... 누구든 서적을 열람하려는 자는 서적고에 가서 임의로 어떤 책이든 펼쳐볼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허하며 독서하려는 학생이 서책이 없어 공부할 수 없을 때는 대출료를 지불하면 빌려주지만 책을 훼손하면 책값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서유견문」에 앞서 언론기사에 일본 동경도서관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1883년 10월 31일 (고종 20년) 박문국의 초대 총재 민영목(閔泳穆)과 부총재 김만식(金晩植) 등이 창간한 최초 근대 신문 겸 관보인 〈그림 2〉의 「한성순보」(漢城旬報, 1884. 3. 27. 12면)에 게재된 ‘이태리가 날로 盛해지다’는 제하의 내용 중 ‘서양서고, 동경서적관, 동경도서관, 도서관’을 소개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漢城旬報
(1884. 3. 27. 12면)

일본 역시 명치 5년 8월 처음으로 西洋書庫 예를 본받아 東京書籍觀을 창설하여 내외 고금도서를 널리 구해 근래에는 책을 書籍觀과 분리하고 세 곳에 비치하여 한 곳은 淺草文庫라 하고 다른 곳은 東京圖書館・上野博物館이라 하여 그 곳에 늘 監吏를 두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그런데 서고 내에는 다시 몇 개의 室이 있는데 그것에 漢籍室・洋籍室・佛籍室・圖書室・算書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실마다 몇 개의 部를 설치하여 政部・農部・集部・詩部로 나누어 類로 분별해 놓았다. 이렇기 때문에 관람자 중에서 政治部分을 볼 뜻이 있는 자는 각 실의 政部에만 돌아가며 열람하고 농정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하면 역시 각 실의 農部를 巡覽케 하였다. 참으로 이렇게만 하고 보면 内外古今의 도리를 통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특별히 각 서고마다 반드시 新報室을 두고 내외 모든 신보를 수집해 두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서고에 들어갔다 하면 천하의 형세를 알아보는데 또한 어려움이 없

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을 이끌어 주고 교화하는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직장에 알맞은 책임자라면 반드시 채용할 것이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훌륭한 제도라면 본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개인 서재에 불과함에도 도서관이란 말은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들이 남긴 문집, 묘갈명, 일기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화제한어인 도서관은 1881년 수신사로 방일한 이현영의 「일사집략」과 조준영의 「일본견문사건초」, 1882년 박영효의 「사화기략」, 1884년 「한성순보」, 1885년 박대양의 「동사만록」에 등장한다. 그 가운데 1882년 3차 수신사로 참가한 박영효는 1880년 개칭된 동경도서관을 관람한 후 저술한 「사화기략」에서 도서관이란 말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반면에 1881년 일본을 시찰하고 유학한 유길준은 1872년 문부성학문소 창평형(昌平馨)의 서적관으로의 개칭, 1877년 동경대학법리문학부도서관 개관, 1879년 「교육령」을 통한 서적관의 법제화, 1880년 동경서적관의

동경도서관으로의 개칭, 1889년 3월 2일 『동경도서관관제』 공포 등을 통해 서적관이 도서관으로 개칭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된다(윤희윤, 2023, 40-41). 그럼에도 1889년 탈고한 『서유견문』에서 서양·일본의 도서관을 소개할 때 서적관이나 도서관이 아닌, 중장경용(重藏輕用)에 방점을 둔 ‘서적고’란 용어로 소개하였다. 따라서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최초로 지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Ⅲ.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 도서관 실 논증

1. 초량왜관 및 일본전관거류지 조성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과 일본의 무역·교류, 외교·군사 측면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1407년(태종 8년) 7월 부산포왜관(富山浦倭館, 현 동구 자성대)이 설치되었고, 임진왜란 때 폐쇄되었다가 1607년(선조 40년) 6월 부산항 내에 1만평 규모의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 현 동구청 일대)이 다시 설치되었다. 그 후 거듭된 화재 및 선창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1675년(숙종 1년) 착공하여 1678년 5월 완공한 것이 초량소산(草梁小山, 현 용두산 아래 동광동 일대)의 초량왜관(草梁倭館)이다.

그러나 조선왕조 끝자락이던 1873년 11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 일본은 군함을 이용하여 조선을 위협하였고, 고종 12년(1875년) 9월 19일 월미도에 이어 다음 날 강화도 초지진(草芝鎭)에 나타난 운요호(雲揚號)는 2시간 동안 포격을 가하고 항산도와 영종도를 약탈하였다. 이 사건은 부산·원산·인천의 강제 개항이 조인된 1876년 2월 20일 한일수호조규의 빌미로 작용하여 동년 8월 24일 조규 제4관¹⁾에 근거한 한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이 체결되었고, 1877년 1월 30일 부록 제3관²⁾에 근거한 동래 부사 홍우창(洪祐昌)과 일본 관리관 곤도(近藤眞鋤)가 부산항거류지차입약서(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를 체결하였다. 거류지(concession) 또는 조계(租界, settlement)는 19세기 중반 제국주의가 다른 국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주요 도시의 항구에 설정한 치외법권적 외국인 거류지역을 말한다. 대개 강대국이 약소국 항구도시를 침탈하여 조성하였는데 부산, 원산, 인천, 청진포, 목포, 군산, 성진(城津), 마산에 설치된 청국 및 일본 거류지가 대표적이다(高秉雲, 1987, 15-16).

1879년에는 부산항거류지차입약서 제2조에 근거하여 초량왜관 관청의 거점이던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11만 평(동서 450간, 남북 250간)¹³⁾에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가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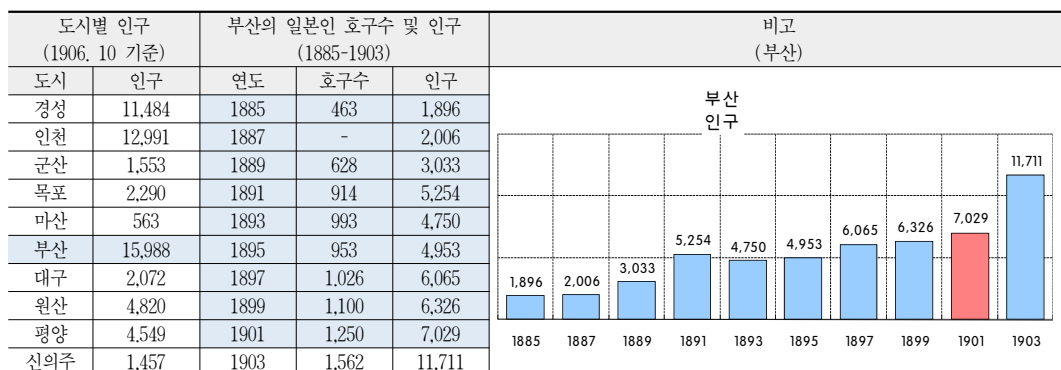
11)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오래 전 일본 공관이 세워져 양국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규정된 항구 두 곳을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 임차지에 가옥을 짓거나 임시 거주하는 자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12) 의정한 조선국 통상 각항에 있어서 일본국 인민이 지기를 조차하여 주거함은 각 지기주와 상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조선국 정부에 속하는 지는 조선국 인민으로부터 관에 납조한 금액과 동일한 조액을 납부하고 거주한다...

이를 위해 초량왜관을 총괄하는 최대 규모의 관수옥(館守屋)을 중심으로 선착장과 인접한 동관(행정구역)과 서관(생활구역)으로 구획하였다. 동관은 외교교섭 창구인 재판가(裁判家), 개시무역을 주관한 시대청(市大廳), 조선무역을 담당한 대관가(代官家) 등을, 서관에는 삼대청(三大廳, 각 20간), 육행랑(六行廊, 각 56간), 연대청(宴大廳, 35간), 공수간(公需間, 28간)을 건립하고 두 구역을 장수통(長手通, 현 광복로)으로 연결하였다.

2. 부산포지회의 설립 및 교육문화 활동

1876년 1월말 부산에 거주한 일본인은 82명에 불과하였으나 1879년에 7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를 집계한 <표 3>을 보면 1885년에는 1,896명, 1895년에는 4,953명, 1901년에는 7,029명으로 급증하였다(統監府, 1907, 1-21; 釜山府, 1921; 井上清磨, 1931, 17-22). 이러한 전관거류지의 일본인 증가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민간단체 설립, 조선어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치, 독서·문화활동 등을 위한 조직 및 시설의 운영으로 이어졌다.

<표 3> 개항기 주요 도시 및 부산의 일본인 인구



1897년 5월 재부산 일본인 토키(土岐横), 시마다(島田帰), 아라나미(荒浪平治郎) 등은 일본 흥도회¹⁴⁾ 부산포지회(釜山浦支会)를 발기하였고 동년 6월 24일 동경본부가 제89지회로 인가함에 따라 부산항 인근 서산하정(西山下町, 현 광복동 3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日本弘道会, 1897a, 2; 日本弘道会, 1897b, 45-46; 森田福太郎, 1912, 62). 부산포지회의 창립

13) 1間은 1.81m며, 용도별 규모는 관용지 18,743평, 공용지 2,427평, 공원지 10,480평, 도로용지 13,000평, 민유지 55,350평이다(相沢仁助 編 (1905). 韓国二大港実勢. 東京: 中村晟文堂, 9).

14) 메이지 초 계몽사상가 니시무라(西村茂樹)는 서양문물 수용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민도덕 진흥 및 도의국가 건설을 위해 1876년 4월 7일 東京修身学社를 설립하였고, 1884년 日本講道会로, 1887년 日本弘道会로 개칭하였다. 1914년 치요다구(千代田区)에 본부를 신축하고 사단법인이 되었다.

회원은 15명,¹⁵⁾ 총 회원은 130명(부산 92명, 원산·목포 등 38명)이었다. 초대 회장은 부산상업회의소 회장과 부산거류민단장을 역임한 오타카(尾高次郎), 2대 회장은 개성학교 창설자 아라나미, 3대 회장은 부산거류민단장 시마다가 맡았다. 당시 제정된 『일본홍도회부산포지회규약』(日本弘道会釜山浦支会規約)은 다음과 같다(日本弘道会, 1897b, 45-46).

제1조 당회는 일본홍도회규약 제1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다.

제2조 당회를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釜山浦支会)**로 칭하고 지회 사무소는 회장 자택 내에 둔다.

제3조 일본홍도회규약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당 지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 2명의 소개로 일본홍도회규약 제3조의 수속을 밟고 ... 실비를 납부하고 회원명부에 날인해야 한다.

제4조 당회에는 회장 1명, 간사 2명의 임원을 둔다.

제5조 당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무를 보고하고,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다과회 또는 임시 담화회를 개최한다.

제6조 회원이 되는 자는 일본홍도회 요령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고, 특히 외교 무역의 요로인 현지에서 상업적 도의를 발휘하여 내외 신뢰를 잃지 않도록 힘쓴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부산포지회가 실천한 대표적인 활동이 학교 및 도서관의 설립·운영이었다. 전자는 일본 각지에서 온 거류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집약하고, 거류민 및 자녀의 증가에 따른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부산에는 부산포지회가 출범하기 전에 소학교인 수제학교(修齊學校), 최초 근대식 사립학교인 개성학교(開成學校) 등이 있었다.¹⁶⁾ 또한 전관거류지의 유일한 종교시설 동본원사(東本願寺)도 1877년 12월 부산교사(釜山敎社)를 창립하여 아동교육을 시작한데 이어 1879년 한어학사(韓語學舍)를 설치하고 조선어를 교육하였다(金潤煥, 2011, 49). 1897년경 소학교 졸업생이 증가하자 부산포지회는 1899년 거류지 내의 동본원사 별원에서 추계 총집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설립을 논의하였고, 전문 20조의 『부산홍도중학교규칙』이 가결됨에 따라 1900년 1월 임시총집회 의결을 거쳐 소학교 부지에 부산홍도중학교를 개설하였다. 후자는 1901년 서산하정 임차지에 사무실 및 서적실(후에 홍도도서실로 지칭)을 위한 소규모 임시 가옥을 건립하고 저녁마다 유지의 자녀를 위한 영어강습회를 열었다(古垣光一, 2005, 20-21; 松原孝俊, 2002, 5; 日本弘道会, 1901, 64).

15) 임회 순 창립회원은 1. 島田婦(第一国立銀行支店), 2. 大川淺次郎(元山歩兵第十七聯隊第十二中隊), 3. 土岐儀(釜山浦常盤町, 초대 간사), 4. 三木久米治(釜山浦幸町), 5. 築田周吉(釜山浦), 6. 福永政治郎(釜山浦), 7. 荒浪平治郎(開成學校), 8. 木俣安親(釜山浦), 9. 武光軍藏(釜山浦), 10. 豊田鑠吉(釜山浦), 11. 石黒良總(釜山浦), 12. 藤本鐘太郎(釜山浦), 13. 柿原治郎(開成學校), 14. 西川太郎(釜山浦), 15. 竹下佳隆(釜山浦常盤町)이다(日本弘道会, 1897c, 74).

16) 1877년경 거류지 관공서는 독서·산술·습자 등을 교육하였고, 1880년 영사관 시설을 개조하여 수제학교를 열었다. 1889년 수제학교를 서정 부산상업회의소로 이전하면서 1885년 동본원사 별원의 여자소학교를 합병하였고, 1895년 부산공립소학교로 개칭하였다. 1896년 2월에는 부산 경무관 박기중 등이 현 봉래초교에 개성학교(교장 荒波平治郎)를 설립하였다.

3. 부산포지회 홍도도서관의 쟁점과 논증

1897년 6월 24일 출범한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는 초량왜관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서관을 개설하였다. 1903년 11월에는 부산포지회가 사무실을 개축하여 부산도서관으로 개칭하였고, 1910년 말에는 사립 부산교육회로 계승되어 1912년 6월 부산도서관으로 발족하였다. 1915년에는 도서관 관리권이 부산부로 이관되었고 1919년 부산부립도서관, 1948년 부산시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명칭, 개설주체, 개설 연월일, 위치와 규모, 장서와 서비스, 성격과 함의에 대한 견해차는 상당히 크다. 이들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 당시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를 논증해야 하는 이유는 개설한 주체, 규모나 성격을 불문하고 한국 최초의 사례를 확증하고 근현대 도서관사를 정립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사료, 저서, 학술논문, 보고서, 도서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언론 사이트 등에 거론된 명칭을 집계하면 <표 4>처럼 독서구락부, 부산(또는 부산지부)도서관(관), 홍도도서관, 독서구락부 등 매우 혼란스럽다. 게다가 당사자인 부산시민도서관은 홈페이지(도서관연혁, 태동기)에서 '독서구락부도서관'으로 표기하였고, 부산지역 대표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는 무려 4가지 명칭(독서구락부, 부산지부도서관, 홍도문고, 홍도도서관)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최초 명칭에 대한 혼란 및 불일치는 3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먼저 독서구락부·독서구락부를 모체를 제시한 논저는 독서클럽이 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는 일반론에 근거한 추론일 뿐 명칭에 대한 전거가 없고, 특히 언론기사는 검증하지 않고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부산도서관(실) 또는 부산지부도서관(관)은 부산포지회를 부산지부로 간주하여 도서관(관)을 후치하였거나 1903년 개칭된 부산도서관을 최초로 오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도문고(도서관)은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를 편의상 홍도회로 간주하였거나, 개설 준비단계에서 언급된 서적실 수준의 문고를 약칭 홍도문고로 표기 또는 도서관을 부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논증하려면 부산포지회가 도서관(관)을 개설한 1901년 전후의 자료를 추적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다. 그 최초 기록은 1902년 3월 일본홍도회 『日本弘道叢記』¹⁷⁾에 게재된 '韓国釜山在弘道圖書室の新設'이다(日本弘道會, 1902, 52-53). 이 잡지가 일본홍도회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점을 감안하면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최초 명칭은 '홍도도서관'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논저는 수정하기 어려울지라도 향후 자료에서는 독서구락부, 독서구락부, 부산지부도서관, 홍도도서관이 아닌 '홍도도서관'로 통일해야 하며, 관련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는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홍도도서관을 개설한 주체는 누구인가.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명칭(부산포지회, 부산지회, 부산지부, 한국지회 등)이 제시되었다. 그 중 부산지부로 규정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 명백한 오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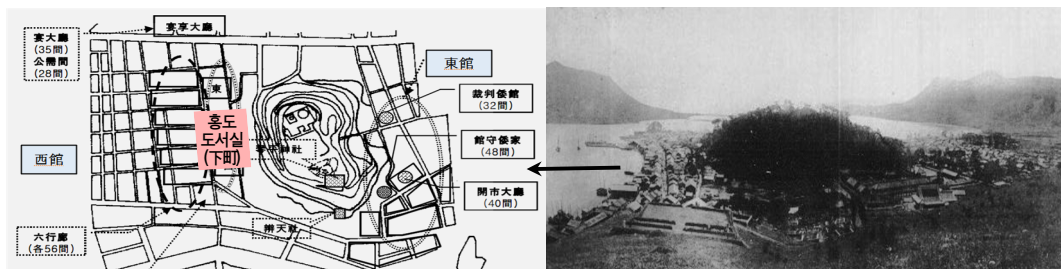
17) 일본홍도회 잡지는 『弘道會雜誌』(1887. 11-1889. 7), 『日本弘道會叢記』(1899. 10-1892. 3), 『日本弘道叢記』(1892. 3-1903. 6), 『弘道』(1903. 7-현재)로 개칭되어 왔다.

〈표 4〉 한국 최초의 홍도도서실(관) 명칭 표기 사례

연도	연구자/사이트	명칭						출처
		도서 구락부	독서 구락부	부산 (지부) 도서실 (관)	홍도 문고	홍도 (회) 도서관	홍도 (회) 도서실	
1901-1903	日本弘道會						■	日本弘道叢記, 113(1901), 64; 119(1902), 52-53; 134(1903), 42.
1904	釜山日本領事館			■				慶尙道事情(페이지 미표기)
1905	相澤仁助 編輯			■			■	釜山港勢一斑(日韓昌文社), 220-221.
1906	日本弘道會				■			日本弘道會要覽, 13, 23.
1912	森田福太郎 編			■				釜山要覽(釜山商業會議所), 62
1916	釜山甲寅會			■				日鮮通交史: 附釜山史, 178.
1927	釜山府·釜山教育會			■				釜山教育五十年史, 34.
1963	박희영		■					도협월보, 4(5), 212-216
1969	백린	■						韓國圖書館史研究(한국도서관협회), 150.
	김종문			■				釜山市立圖書館略史(부산시립도서관), 5.
1980	김포옥			■				圖書館學, 6, 136-172.
1981	한국도서관협회		■					圖書館學概論, 95.
1982	김세익		■	■				圖書-印刷-圖書館史(종로서적), 237-238.
1985	宇治郷 毅					■		參考書誌研究, 30, 6.
1988	宇治郷 毅			■				參考書誌研究, 34, 1-27.
1990	김남석			■		■		박사논문(단국대), 71-75.
1999	김봉희			■				한국개화기서적문화연구(이화여대), 363.
2002	松原孝俊			■				韓國言語文化研究, 2, 5.
2003	한도협부산지구협의회	■		■	■	■		釜山の 圖書館史, 41.
	최정태 외			■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182.
2004	정동렬·조찬식		■					문헌정보학총론(한국도서관협회), 66.
2005	古垣光一						■	アジア教育史研究, 14, 1-25.
	加藤一夫 등		■	■				日本の植民地図書館(社会評論社), 186, 355.
2006	鳥井克之·熊谷明泰		■					関西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 5, 80.
2012	곽철완			■				도서관의 역사(조은글터), 192.
2013	최순남						■	국회도서관, 50(8), 37.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경남대표도서관 연구보고서, 22.
2017	송재술					■		도서관문화, 58(7), 20.
2018	김영석·이용재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34.
2019	윤희운						■	도서관지식문화사(동아시아), 249.
2020	김성태						■	박사논문(서울대), 56, 78.
사이트	부산시민도서관		■	■				도서관 소개: 태동기
	부산광역시	■						문화관광 편
	부산역사문화대전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	■						통계로 보는 공공도서관 70년①
	부산일보		■					토요에세이: 오래된 도서관과 사람
	한산신문		■					역사를 담은, 그리고 역사가 된 공공도서관
	부산기네스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신아일보		■					제56회 전국 도서관대회 부산서 개막
	오마이뉴스		■					도서관, 그 사소한 역사] 종로도서관 ①
	경기일보		■					인천 공공도서관 역사와 미래 100년
	매일신문					■		우리 공공도서관 역사 한눈에
	위키백과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최초의 명칭은 1897년 제정된 『일본홍도회부산포지회규약』 제2조에서 “당회를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釜山浦支會)로 칭하고 지회 사무소는 회장 자택 내에 둔다”고 규정한 것이 그 증거다. 따라서 홍도도서관을 개설한 주체는 일본홍도회 제89지회로 출발한 ‘부산포지회’이며, 1903년 부산지회로 개칭되었다(古垣光一, 2005, 1).

셋째, 홍도도서관은 언제 개설되었는가. 토리와 구마타니(鳥井克之, 熊谷明泰, 2006, 80)는 시민도서관 전자자료실의 『부산일보』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하여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지부가 설치한 부산독서구락부를 전신으로 하는 부산 최초의 도서관으로 규정하였고, 1927년 간행된 『부산교육오십년사』도 1901년 10월로 명시하였다(釜山府・釜山教育會, 1927, 34). 반면에 후루가키(古垣光一, 2005, 21)는 1903년 10월 부산포지회 회원이 부속도서관(홍도도서관)을 개설하고 일반인에게 이용을 허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01년 12월 26일자 『反圖書館及事務所建築費會計報告』에 따르면 홍도도서관은 건축비 약 600엔을 투입하여 1901년 8월 착공하고 10월 10일 개관하였다(松原孝俊, 200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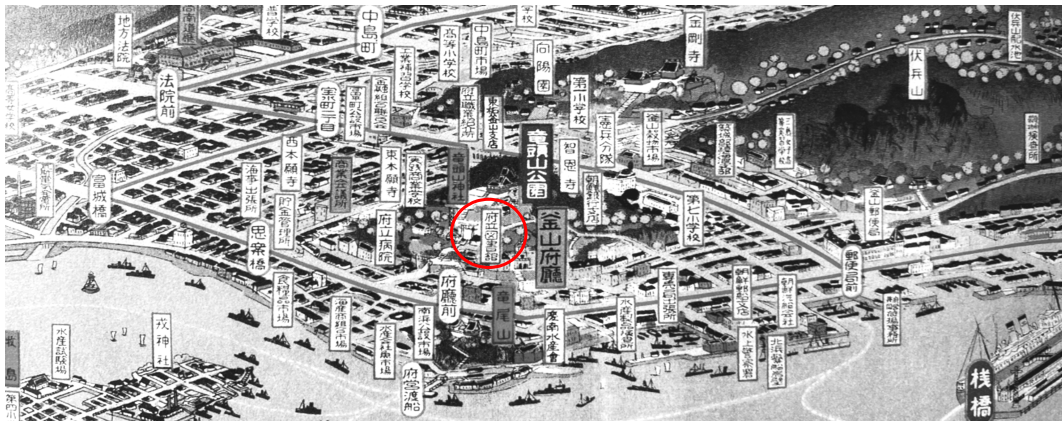


〈그림 3〉 초량왜관 전경(우)과 일본전관거류지의 배치구조 및 홍도도서관 위치

넷째, 홍도도서관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 논저에서 용두산 아래 서산하정(西山下町, 약칭 西町)을 지목하고 있다. 서산은 용두산 서편, 하정은 용두산 아래 마을이다. 더 정확한 위치는 〈그림 3〉과 같이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북빈정, 상반정, 본정, 금평정, 입강정)과 서관(대청정, 서정, 서산하정, 변천정, 행정, 남빈정)으로 양분·조성한 일본전관거류지 중 서관의 서산하정 9번지(현 광복동 3가)에 건립한 임시 가옥이 부산포지회 사무실(1904년 홍도관으로 개칭)과 홍도도서관이다. 그 후 도서 증가로 공간이 부족하자 1903년 7월 사무소를 개축하여 11월 완공한 후 부산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日本弘道會, 1904, 35-36). 그러나 사무실 및 도서관은 1905년 1월 공립소학교 교실로, 1906년 4월부터 1907년 7월까지의 거류민단립상업학교 교실로 사용되었다. 이어 1910년 말에는 운영비·도서비·인건비 등 자금난, 많은 일본 거류민을 위한 개방과 이용 확대 등을 이유로 도서관 사업 및 장서를 부산교육회¹⁸⁾로 이관하였다. 그 대신에 부산포지회는 700엔으로 부평동(富坪洞)에 부지 1,006.3평을

18) 1907년 2월 일본거류민단이 창설한 사립단체로 초대 회장은 부산부윤 마카와츠(若松兎三郎), 부회장은 부산거류

확보하고 조선가옥 두 채를 매입한 후 432.79엔을 투입하여 단층 건물을 신축하고 1911년 7월 사무실을 개관하였다(日本弘道會, 1912, 111; 1914, 116). 한편, 부산도서관을 인수한 부산교육회는 1911년 11월 용두산 중턱 남면(현 동광동 1가)에 680엔을 들여 신축하고 1912년 6월 개관하였다. 당시 명칭도 「부산교육회부속도서관 관칙」 제1조에서 ‘본관을 부산도서관으로 칭한다’고 규정하였고(松原孝俊, 2002, 9), 관장은 부산상공업회의소 부회장과 부산교육회 회원을 역임한 미즈노(水野巖)가 맡았다. 1919년 부산부로 이관된 부산도서관은 〈그림 4〉처럼 부산부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1933년경 본관 2층과 단층 서고를 신축하였다. 1936년 8월 부산부가 용두산 아래 신청사를 완공한 후 부산부립도서관은 1937년 8월 9일 구 청사로 이관하였으나 1938년 2월 9일 화재로 다시 용두산 중턱의 구 도서관 건물(관장 豊田八郎)로 이관하였고, 1945년 12월 25일 시교육위원회 청사(동광동)로 옮겼다. 그리고 1949년 8월 15일 신축된 부산시립도서관(부전동), 1978년 부산시립도서관, 1981년 부산직할시립 부산도서관으로 거쳐 1982년 부산직할시립시민도서관(부산진구 초읍동 신축)으로 개칭되었다.



〈그림 4〉 흥도도서실 후신 부산부립도서관 위치(용두산 서쪽 원내)

다섯째, 흥도도서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개설 당시의 규모를 제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서산하정 임차지에 임시 가옥을 건립하여 사무실과 도서실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방 1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1년 부산교육회로 이관된 후의 부산도서관은 부지 316.75평에 건립한 서양식 2층 목조 건물로 총 44평(본관 열람실 30평, 현관·기타 5평, 서고 9평)이었고(森田福太郎, 1912, 62; 松原孝俊, 2002, 8-10), 다시 부산부로 이관되어 1933년 신축된 부산부립도서관 규모는 본관(30평) 2층과 서고 89평이었다. 본관 열람실에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하였다.

여섯째, 흥도도서실의 장서는 몇 책 정도였는가. 개설 당시의 장서수를 모리타(森田福太郎,

민단장 시마다(島田婦)가 맡았으며, 1912년 기준 회원은 총 246명(명예회원 3명, 종신회원 12명, 특별회원 46명, 보통회원 185명)이었다.

1901, 62)는 4천여 권, 유지고(宇治郷 毅, 1985, 6)와 김남석(1990, 75)은 각각 도서 6천책과 신문잡지 약간을 소장한 것으로, 김영석과 이용재는 장서 대부분을 일서로 추정(2018, 146)하였는데, 출처가 없고 제시된 통계데이터 및 언어별 구성내용도 설득력이 없다. 개설된 후 6년이 경과한 1907년에도 <표 5>를 보면 2,076책(화한서 610책, 양서 1,466책)에 불과하였고, 1910년 부산교육회로 이관된 후 부산도서관 장서는 1914년에 4천책이 넘었다. 흥도도서실이 부산교육회로 이관될 때(1901-1910년)까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당시 장서 4천권 내지 6천책과 대다수를 일서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표 5> 부산포지회 흥도도서실 및 부산교육회 부속 부산도서관의 장서통계 (단위: 책)

연도	和漢書	양서	계	출처
1907	610	1,466	2,076	統監府(1909), 第2次統監府統計年報, 東京: 統監府, 121.
1908	1,632	1,819	3,451	統監府(1910), 第3次統監府統計年報, 東京: 統監府, 160.
1909	1,444	1,947	3,391	統監府(1911), 第4次統監府統計年報, 東京: 統監府, 222.
1911	2,596	263	2,889	朝鮮總督府(1912),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628.
1914	4,341	246	4,587	朝鮮總督府(191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719.
1916	5,767	283	6,050	朝鮮總督府(1917),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782.

<표 6> 부산교육회부속부산도서관 관칙(1918년)

제1조	본관은 부산도서관이라 칭한다.
제2조	본관에 다음의 직원을 배치한다. 관장 1명, 도서심사원 약간 명, 서기 1명
제3조	관장은 관무를 총괄하여 도서심사원의 구입도서 심사하고 서무회계를 담당한다.
제4조	개관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5조	부산교육회원 외 열람자에게는 매일 2전의 열람료를 징수한다. 단, 10회는 10전, 20회는 15전, 30회는 20전의 할인권을 발행한다.
제6조	열람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내관자의 열람부에 주소·이름 기재 ; 2. 도서를 파손한 경우에 상당한 변상 ; 3. 관외 게시사항

일곱째, 흥도도서실은 한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인가. 이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려면 서비스 대상 및 개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01년 흥도도서실을 개설할 때 도서를 수집하여 대중에게 열람하였고(釜山府·釜山教育會, 1927, 34), 1912년 부산교육회 소관으로 이관·개칭된 부산도서관은 <표 6>의 1918년 「부산교육회부속부산도서관 관칙」 제4조에서 개관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제5조는 ‘부산교육회원 외 열람자에게는 매일 2전(錢)을 징수하되, 10회 이용할 때는 10전, 20회는 15전, 30회는 20전의 할인권을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중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다(森田福太郎, 1912, 62; 古垣光一, 2005, 21). 따라서 1850년 제정된 영국 「공공도서관법」이 표방한 ‘공비운영, 만인공개, 무료제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흥도도서실과 그 후신인 부산도서관은 현대 공공도서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산 소재 일본거류민단이 설립·운영하였고, 이용

대상도 거류지 일본인 위주였으며, 부산교육회 회원 외에는 유료로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설립주체의 국적이나 이용대상의 제한성을 불문하고 한국에 개설된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부정하면 홍도도서관을 승계한 부산교육회 부산도서관, 조선총독부 지배 하 부산부의 부산부립도서관, 1885년 프랑스 블랑(Blanc) 주교가 설립한 대구 계산성당, 일제 강점기인 1925년 쓰카모토(塚本靖)가 주도한 구 서울역, 1926년 건립된 경성부청(현 서울도서관), 1927년 경기고등보통학교(현 정독도서관)의 뿌리도 외면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홍도도서관의 성격을 규정할 때는 전제를 바탕으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립주체 측면에서는 한국인에 의해 개설된 최초 도서관이 아니지만, 존재적 관점에서는 한국에 설립된 최초 도서관이다. 또한 규모를 감안하면 도서관의 전 단계인 도서실이고, 공개성 측면에서는 전관거류지 일본인을 위한 사립 공공도서관이며, 서비스 관점에서는 유료 도서관이었다.

이상에서 논증한 홍도도서관의 전모 및 변천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최초 명칭은 ‘홍도도서관’이고, 위치는 용두산 중심의 초량왜관 내 일본전관거류지 서관의 서산하정 9번지(현 광복동 3가) 임시 가옥이었다. 건물규모는 방 1칸, 장서는 1천권 정도로 추정되며, 일본 거류민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중에게도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짐작된다.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홍도도서관은 한국에 존재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고 부산시민도서관의 모태다.

<표 7>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 홍도도서관 논증 결과

구분	주요 논증내용
명칭	• 홍도도서관(개설 계획에는 서적실로 표기), 도서(또는 독서)구락부의 후신이 아님
설립주체	•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제89지회), 1903년 부산지회로 개칭, 1904년 사무소를 홍도관으로 개칭
개관일	• 1901(명치 34년) 10. 10
위치와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1년 : 초량왜관 일본전관거류지 중 서관 내 서산하정 9번지(현 광복동 3가) 임차지 임시 가옥 • 1903년 : 부산도서관으로 개칭(사무소 개축, 용두산 서산하정 9번지) • 1910-1937년 : 1910년 말 부산교육회로 이관, 1911년 11월 부산도서관 신축(변천정, 현 중구 동광동), 1915년 관리권이 부산부로 이관, 1919년 부산부립도서관(금평정, 현 중구 동광동)으로 개칭, 1937년 구 부산부 청사(현 중구 중앙동 7가)로 이관, 1938년 화재로 구 도서관(용두산 서산하정)으로 재이관 • 1945-1949년 : 1945년 부산부립도서관을 시교육위원회 구 청사(현 중구 동광동)로 이관, 1949년 부산시립도서관으로 개칭(행정편제 府에서 市로 개편), 1954년 12월 용두산 화재로 소실 • 1963년 : 부산시립도서관 신축(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 현 부산진구 부전동) • 1978년 이후 : 부산시립부산도서관(1978년), 부산직할시립부산도서관(1981년), 부산직할시립시민도서관(1982년 신축,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1995년)으로 개칭
건물규모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당시 규모는 미상. 다만, 임시 가옥을 사무실과 도서실로 사용하였기에 방 1칸 정도 추정됨 • 1912년 부산도서관 신축 : 부지 316.75평, 서양식 2층 목조건물로 총 44평(열람실 30평, 기타 5평, 서고 9평) • 1933년 부산부립도서관 신축 : 본관(30평) 2층과 단층 서고 89평(본관 열람실에 좌석 60개 배치)
장서 (추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당시 통계가 없음에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4천여 권 내지 6천책은 설득력이 없음 • 1909년(부산도서관) 장서가 2,076책(화한서 610책, 양서 1,466책)이므로 1천책 내외로 추정됨
개방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당시부터 대중(일본인)에게 열람하였을 뿐, 부산인 등 만민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1912년 부산도서관은 교육회원 외에 대중에게도 개방함(열람료는 1일 2전 기준) • 1919년 부산부립도서관은 대중을 위한 무료서비스 제공
성격과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거류민단이 개설한 사립도서관이고, 한국에 개설된 최초의 공공도서관 • 소규모 건물 및 장서를 보유한 도서실 수준이고 유료서비스 기반의 사립 공공도서관

IV. 요약 및 결론

1961년 옥스퍼드대학 교수 카(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규정하였다. 2006년 역사학자 다카사키(高崎宗司)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서문에서 ‘역사를 모르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한다’고 일갈하였다. 양자는 과거와 대화하려면 고증을 통해 역사를 정립해야 반복적 오류를 차단할 수 있다는 논지를 함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헌 추적을 전제로 한국도서관사의 부실과 오류를 논증하였다.

첫째, 고대 한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도서관 명칭은 고구려 장문고다. 구한말 황현의 『매천야록, 1908년』에 당나라 이적이 평양의 궁궐 및 장문고(왕실서고)를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출처가 없어 확정하기 어렵다.

둘째, 도서관이란 말은 비록 개인서재 내지 사가장서루를 지칭하였음에도 조선 초중기부터 시문집, 묘갈명, 일기에 등장한다. 그 최초는 1517년 신용개의 『속동문선』이며, 이어 황정욱의 『지천집, 1632년』, 이민성의 『경정집, 1664년』, 이복원의 『쌍계유고, 1789년 추정』, 이채의 『화천집, 1866년』에도 기록되어 있다.

셋째, 도서관이란 화제한어는 유길준이 『서유견문, 1895년』을 통해 서양 도서관 사정을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것이 종래의 중론이다. 그러나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조사 시찰단으로 방일한 이현영의 『일사집략, 1881년』이고, 이어 조준영의 『일본문견사건초, 1881년』와 박영효의 『사화기략, 1882년』, 『한성순보, 1884년』, 박대양의 『동사만록, 1885년』에도 소개되었다. 따라서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서양·일본 도서관을 소개할 때 통상 중장경용에 치중하는 ‘서적고’로 소개한 것을 최초로 지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넷째, 도서관(관)을 시설명에 부여한 최초 사례는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1901년 10월 10일 전관거류지에 개설한 ‘홍도도서관’이며, 1903년 11월 부산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많은 문헌에 기술된 도서관구락부, 독서구락부(도서관), 부산(부산지부)도서관(관), 홍도도서관 등은 모두 오류다. 향후 홍도도서관으로 통일하고 관련 홈페이지 등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홍도도서관 위치는 용두산 중심의 초량왜관 내 일본전관거류지 중 서관 서산하정 9번지(현 광복동 3가) 임차지의 임시 가옥이었다. 건물규모는 방 1칸 정도, 장서는 화한서와 양서로 구성된 1천권 내외였고, 일본 거류민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중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홍도도서관은 한국인이 설립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서관’이란 명칭을 부여한 건물이 한국에 등장한 것은 최초다. 건물·장서규모를 감안하면 도서관 전 단계 수준이고, 공개대상 측면에서는 전관거류지 일본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기반의 사립 공공도서관이다. 따라서 홍도도서관 성격을 규정할 때는 민족적 정서, 역사적 갈등, 이념적 프레임에 초월하는 냉정과 분별이 요구된다. 그것이 한국 근현대 도서관사를 정립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高秉雲 (1987).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 東京: 雄山閣.
- 金南碩 (1990).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社會教育活動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교육학과.
- 김성태 (2020).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학 전공.
- 김세익 (1982). 圖書-印刷-圖書館史. 서울: 종로서적.
- 김영석, 이용재 (201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31-150.
- 金潤煥 (2011). 開港期釜山における東本願寺別院と地域社会. 海港都市研究, 6, 43-57.
- 金抱玉 (1980).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6, 136-172.
- 박희영 (1963). 근세한국공공도서관사초: 1901-1945. 도협월보, 4(5), 212-216.
- 백린 편 (1969). 한국도서관사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俞吉濬 輯述 (1895). 西遊見聞. 第十七編. 東京: 交詢社.
- 윤희윤 (2019). 도서관 지식문화사. 서울: 동아시아.
- 윤희윤 (2023). 화제한어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3-44.
- 이정빈 (2012). 고구려 肩堂의 설립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67, 341-371.
- 이태리가 날로 盛해지다. (1884. 3. 27.). 한성순보, 12.
- 정필모 (1971).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圖書館學, 2, 63-78.
-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003). 釜山の 圖書館史. 부산: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 Kupfer, D. C. (2010). Chaucer, books, and the poetic library.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Available: <https://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429>
-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日本の植民地圖書館. 東京: 社會評論社.
- 古垣光一 (2005). 日本弘道会釜山浦支会の教育・文化活動. アジア教育史研究, 14, 1-25.
- 釜山甲寅會 (1915). 日鮮通交史: 附釜山史. 釜山: 釜山甲寅會.
- 釜山府 (1921). 釜山府勢要覽. 釜山: 釜山府.
- 釜山府, 釜山教育會 (1927). 釜山教育五十年史.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 森田福太郎 編 (1912). 釜山要覽. 釜山: 釜山商業會議所.
- 相沢仁助 編 (1905). 韓国二大港実勢. 東京: 中村晟文堂.
- 石川了 (1983). 貸本屋. 研究資料日本古典文学, 4: 近世小説. 東京: 明治書院.
- 松原孝俊 (2002). 釜山市立図書館略史(1910年-1938年を中心に). 韓国言語文化研究, 2, 1-27.

- 宇治郷 毅 (1985). 近代韓国公共図書館史の研究: 開化期から1920年代まで. 参考書誌研究, 30, 1-22.
- 宇治郷 毅 (1988). 近代韓国図書館史の研究: 植民地期を中心に. 参考書誌研究, 34, 1-27.
- 日本弘道会 (1897a). 日本弘道叢記, 63, 2 ; 日本弘道会 (1897b). 日本弘道叢記, 64, 45-46 ; 日本弘道会 (1897c). 日本弘道叢記, 68, 74.
- 日本弘道会 (1901). 日本弘道叢記, 113, 64.
- 日本弘道会 (1902). 韓国釜山在弘道図書館の新設. 日本弘道叢記, 119, 52-53.
- 日本弘道会 (1904). 釜山図書館の設立. 弘道, 145, 35-36.
- 日本弘道会 (1912). 弘道, 247, 111.
- 日本弘道会 (1914). 弘道, 263, 116.
- 井上清磨 (1931). 釜山を擔ぐ者. 釜山: 關門報知新聞社.
- 鳥井克之, 熊谷明泰 (2006). 日本統治期の台湾・朝鮮における「国語」教育(下). 関西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 52, 17-169.
- 統監府 (1907). 在韓本邦人狀況一覽表. 東京: 太田音次郎.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Lin (1969). A Study on Korean Library Histo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Busan District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The Library History of Busan. Busan: Busan District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Busanbu (1921). Bulletin for Busanbu. Busan: Busanbu.
- Busanbu, Busan Education Association (1927). 50 Years of Busan Education. Seoul: Chosen Printing Company.
- Fuzan Kōinkai (1915). A History of Trade between Joseon and Japan: A History of Busan. Pusan: Fuzan Kōinkai.
- Inoue, Kiyomaro (1931). Those who carry Busan. Busan: Kanmon Hochi Shimbunsha.
- Ishikawa, Ryo (1983). Booklender. Research Materials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IV: Early Modern Novel. Tokyo: Meiji Shoin.
- Italy is getting more and more prosperous. (1884, March 27). Han Seong Sun Bo, 12.
- Jung, Pil-mo (1971). An etymological study o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2, 63-78.

- Kato, Kazuo, Kawata, Ikoi, & Tojo, Fuminor (2005). Colonial Library of Japan. Tokyo: Shakaihyoronsha.
- Kim, Nam-Seok (1990). A Study on the Social Education of Public Libraries and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im, Po Ok (1980). Study on the Korean public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the Japanese rul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6, 136-172.
- Kim, Se-Ik (1982). Books-Printing-Library History. Seoul: Jongno Seojeok.
- Kim, Sung-tae (2020).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Cultural Facilities in Gyeongseong(Seou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Program of Urban Design.
- Kim, Young-Seok & Lee, Yong-Jaee (2018). A study on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Japanese Hongdoho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31-150.
- Kim, Yunhwan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Higashi Honganji Busan Betsuin and communities of seaport city of Busan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Journal of Port Cities Studies, 6, 43-57.
- Ko, Pyong-un (1987). History of the Concession of modern Korean. Tokyo: Yuzankaku.
- Koichi, Furugaki (2005).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education and culture by Nihon Kodo Kai Huzanpo-shikai. Researches of Educational History in Asia, 14, 1-25.
- Lee, Jeong-Bin (2012). The Gyungdang(局堂) of Goguryeo: historical evolution of adolescent age-group with the formation of centralized aristocratic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67, 341-371.
- Matsubara, Takatoshi (2002). Brief history of Busan city library: 1910-1938. Studies in Korean Languages and Cultures, 2, 1-27.
- Morita, Hukutaro (1912). Busan Handbook. Busan: Busan Chamber of Commerce.
- Nihon Kodo Kai (1897a). Nihon Kodo Bulletin, 63, 2; Nihon Kodo Kai (1897b). Nihon Kodo Bulletin, 64, 45-46; Nihon Kodo Kai (1897c). Nihon Kodo Bulletin, 68, 74.
- Nihon Kodo Kai (1901). Nihon Kodo Bulletin, 113, 64.
- Nihon Kodo Kai (1902). New establishment of Kodo library in Busan, South Korea. Nihon Kodo Bulletin, 119, 52-53.
- Nihon Kodo Kai (1904). Establishment of Busan Library. Kodo, 145, 35-36.
- Nihon Kodo Kai (1912). Kodo, 247, 111.

- Nihon Kodo Kai (1914). Kodo, 263, 116.
- Nisuke, Aizawa (1905). Situations of the Two Harbors of Korea. Tokyo: Nakamura Shinbundo.
- Park, Hui-yeong (1963). History of Korean public libraries in modern times: 1901-1945. KLA Journal, 4(5), 212-216.
- Resident-General (1907). List of Japanese Status in Korea. Tokyo: Resident-General.
- Torii, Katsuyuki & Kumatani, Akiyasu (2006). The education of “national language” in Taiwan & Korea under Japanese imperial control (Part II).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uman Rights Studies, Kansai University, 52, 17-169.
- Ujigo, Tsuyoshi (1985). A study of modern public library history in Korean: from the pioneering period to the 1920s. Reference Service and Bibliography, 30, 1-22.
- Ujigo, Tsuyoshi (1988). A study of modern public library history in Korean: focusing on the colonial period. Reference Service and Bibliography, 34, 1-27.
- Yoon, Hee Yoon (2019). History of Library Knowledge Culture. Seoul: Dongasia.
- Yoon, Hee Yoon (2023).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issue of the Japanese-Chinese words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7(1), 23-44.
- Yu, Kil-chun (1895). Seoyugyeonmun, 17. Tokyo: Kojunsha.